양촌선생 "주역천견록" 해제

이 광 호 (연세大 철학과 학과장)

〈지난호에 이어〉

시설(施設)

16

'정풍(鄭風)'·'위풍(衛風)'은 모두 음성(淫聲)으로 '정풍'이 음란함이 '위풍'보다 심하다. 그러므로 공자가 안회에게 나라를 다르시려렴 "정 나라 음악을 내쫓아야 한다"고 말하고 '위풍'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니, 더 심한 경우를 든 것이다. 그러나 위 나라는 음란하여 오랑캐 나라인 적(狄)에게 멸망하였고, 정 나라는 망하지 않았으니 어째서인가?

'정풍'이 음란한 것은 일반 백성의 남녀 사이에서 음란한 것일 따름이다. 이에 비해 '위풍'은 위 선공(衛宣公)이 며느리가 될 여인을 가로채고, 공자 완(頑)이 임금의 어머니와 간통을 하고, 대대로 내로은 귀족들이 높은 지위에 있으면서 서로 처첩(妻妾)을 훔치며 백성들의 윗 자리에서 군림하니 망하지 않고서 무엇을 기다리리오? 또한 이로 인해 부자형제가 골육상잔하였으니 인륜이 매우 심하게 변하였다. 참담하도다! 망하고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으니 또한 요행이도다.

공자께서 유독 정 나라 음악을 가지고 경계를 삼은 것은, 위 나라 시는 기롱하고 풍자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뜻이 여전히 많아 이를 보는 사람들이 그래도 나라가 망하는 원인을 알아서 스스로 반성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 나라 시는 방탕하고 다시 부끄러워하고 뉘우치는 싹이 없어, 그 음악을 듣는 사람도 마음이 풀어져 차츰 그 가운데로 빠져들어 끝내는 반드시 망하게 됨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공자는 정 나라 음악을 반드시 내쫓게 한 것이다. 그리고 정 나라가 망하지 않아 뉘우쳐 경계하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 필연적으로 경계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시들을 산삭하지 않고 '국풍'에 올린 것은 또 어째서인가?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올바른 예법과 음악을 사용해야 한다. 시는 일반 사람들이 숭상하는 미악(美惡)을 관찰하여 본보기와 훈계를 내려야 한다. 훗날 이 시를 보는 사람들은 반드시 악을 천하게 여겨 추하다고 말할 것이니, 지난날을 돌아보고 뉘우쳐 경계하는 마음이 구름처럼 뭉게뭉게 생겨날 것이다. 그러므로 관악기와 현악기에 올리면 그 소리가 사특하고 화려하여 쉽게 사람의 마음을 미혹시키므로 내쫓아 끊어버리는 것이 당연하다. 그것을 책에다 기록하면 그 악을 분명히 드러나 쉽게 사람들에게 보일 수 있으니 보존하여 경계시킴이 당연하다. 그러므로 나라를 다스리는 경우에는 내쫓았지만, 시를 산삭하는 데는 보존하였으니 가르침이 아닌 것이 없다.

17

제 양공(齊襄公)과 문강(文姜)의 금수 같은 행위는 위 선공이 며느리가 될 여인을 가로챈 것보다 심하다. 시인이 이를 더럽게 여겨서 여우로 불렀고, 끝내 공자무지(公子無知)에게 살해되었다. 옳지 못한 행동을 한 결과가 너무 분명하다. 위나라는 훗날 멸망하였지만, 제 나라의 화는 그 자신의 몸에 미쳤으니, 그 악이 심하면 그 화도 빨리 닥친다. 그러고도 끝내 제 나라를 멸망하지 않은 것은 또한 요행일 따름이다. "시로써 그 나라의 풍속을 볼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시를 읽는 사람들이 먼저 알아야 할 것이다.

'위풍' 가운데 <정기방중>과 <재치>등의 시편이 있어 그 나라가 멸망한 것을 알수 있다. "집전"에서 또한 이를 분명히 밝혔다. '제풍(齊風)'에는 <남산(南山)>과 <폐구(敝笱)>에서 제 양공을 매우 더럽게 여겼으나 당시 공자무지의 사건은 "시경"에 보이지 않는다. "집전"도 언급하지 않고 다만 노 환공이 팽생(彭生)과 함께 탄 수레에서 죽었다는 것을 기록하였을 따름이다. 초학자들이 다만 제 양공의 추잡하고 못된 행동을 볼 뿐, 하늘의 도리가 음란한 행위에 재앙을 주는 이치가 이와 같이 명백하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공자가 시를 산삭하고 경계를 내리는 뜻이 혹 자칫 사라질 것이다. 그러므로 외람되지만 이를 언급하고 적어 둔다.

18

위(魏) 나라 땅은 진(晉)나라에 합병되었고, '위풍'은 모두 진 나라와 관련되어 지어졌다. 내가 생각하건대 '국풍'은 대부분 춘추 시대의 시이다. 위나라는 춘추 시대 초기에 이미 진 나라에 의해 멸망되었으며 진 나라에서는 위 나라 땅을 자기 나라 대부인 필만(畢萬)에게 봉읍으로 주었으니, 그시들이 모두 진 나라와 관련되어 지어진 것이다. <십무(十畝)>는 어진 사람들이 조정을 떠나는 것을 읊었고, <석서(碩鼠)>는 일반 백성들이 농토를 떠나는 것을 읊었다. 신하와 백성의 마음이 이멀어지고 배반하는 것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나라가 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곡옥(曲沃)'은 강성해지는데, 진 나라는 날로 국력이 약해져 백성들이 등지고 곡옥으로 돌아갔다. 후에 곡옥이 드디어 진 나라를 멸망시켰다. <석서>에서 말한 '낙토(樂土)'-'낙국(樂國)'은 아마도 또한 곡옥을 가리키는 것이리라. 당(唐) 나라가 뒤에 진(晉) 나라의 명칭을 고치면서 옛날' 위(魏)'의 호칭을 그대로 사용한 것은 아마도 주 나라 초기에 성대하게 잘다스려지던 시절을 생각해서일 것이다.

19

'진풍(秦風)'의 <황조(黃鳥))>는 선량한 사람을 죽이고 순장한 것을 읊은 것이니, 군자는 진(秦) 나라가 다시는 동쪽으로 정벌을 나갈 수 없음을알았다. "집전"도 또한 진 나라의 쇠약을 탄식하였으니 진 나라는 날로 국력이 약해졌다. 그러나 <무의(無衣)>는 진나라가 용맹해져 이미 여덟 주(州)를 불러 들이고 동렬의 제후들을 조회에 참석케 하는 기세가 있어 진 나라가 날로 강해졌다고 하였으니, 앞의 말과 뒤의 말이 같지 않은 것은 어째서인가?

〈다음호에 계속〉

특별기고 〈29회〉

충정공(忠定公) 권벌(權橃) 선생의 생애와 학문사상

■權 仁 浩 (철학박사, 대진대학교 철학과 교수, 동양철학)

그 해(을사년:1545) 8월 22일 충재 선생은 모든 대신들과 함께 문정왕후와 명종이 납신 충순당(忠順堂)에 들어가 의견을 개진하였다. 이때부터 정미년(1547) 9월까지 문정왕후, 윤원형, 이기, 정순붕, 임백령, 허자 등이 윤임과 유관, 유인숙을 비롯한 중종의 왕자인 봉성군(鳳城君 완峘 ; 중종과 희빈 홍씨 사이의 둘째 아들로 명망이 있었다), 계림군(桂林君 ; 성종의 형 월산대군의 손자, 성종의 셋째 아들 계성군의 양자로 중종의 첫째 계비 장경왕후의 아버지 윤여필의 외손. 인종승하 후에 윤임이 명종의 경원대군, 곧 명종의 계승을 원하지 않고 계림군을 추대하려고 한다는 소문으로 도망치다가 잡혀 죽었다) 등을 밀지(密旨)로 모함하고 역적으로 무고하는 등으로 사화(士禍)가 일어나, 수많은 왕자와 대신을 비롯한 현인및 연루된 사람이 죽거나 귀양가는 등으로 정국이 대단히 혼란하고 민심이 흉흉하였다.

이튿날인 8월 23일에 다시 병조판서에 임명되어, 다음날 홀로 대궐에 나아가 두 번이나 사면을 간곡히 청하여도 허락되지 않았다. 그리고 8월 24일과 26일에 홀로 윤임, 류관, 류인숙 등 세 신하를 구하기를 청하고 헌납(獻納 ; 사간원 정5품 벼슬) 백인걸(1497-1579, 호는 휴암休菴)이 대간(臺諫; 사헌부와 사간원)들이 문정왕후의 밀지에 따라 윤임을 논계할 수 이유를 혼자서 계를 올리고 윤원형을 탄핵하였는데, 그 글이 내용이 매우 격렬하고 절실하였다.

즉, 명종실록(1545 을사년) 8월 26일(병진) 1번째 기사에, 병조판서 권벌이 아뢰기를, "선왕조부터 7년 동안 계속 흉년이 들었고 금년에 이르러 농사가 성숙될 듯하였으나 비바람의 재해가 가을부터 그치지를 않습니다. 삼가 들으니 강원도·함경도 등지는 전혀 먹을 것이 없다고 하니 민생이 가련합니다. 하늘이 재앙을 내리는 것이 이와 같이 크니 매우 두렵습니다. 윗전에서 감선(減膳)하여 수성(修省)하시는데도 천변이 줄어들지 않으니 신은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저께부터 큰 비바람이 밤까지 계속되니 어리석은 소신의 천박한 생각으로는 대신을 유배하는 일은 국가의 중대사인데도 죄를 정한 원인이 불명하니 아마도 하늘의 뜻에 유감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신은 밤에 편안히 잠잘 수가 없어 감히 이렇게 와서 아룁니다. 지금 대소 신료들이 어찌 저들의 정상을 모르겠습니까. 지난번 회의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단서를 몰랐는데 만약 종사를 위태롭게 하려고 한 죄라면 이는 신하로서는 더할 수 없는 큰 죄입니다. 명목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민심이 울분해 하고 무서운 천변이 생기는 것인 듯합니다. 이 사람들이 분명하지 않게 죄를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왕정(王政)에 있어서도 크게 그릇된 일입니다. 대체로 화합하기 매우 힘든 것은 민심입니다. 즉위하신 후에 호령이 분명하였으므로 인심이 다 같이 기뻐하고 나라 안이 안정되었었는데 지금 또 이러한 풍파가 일어나니 신은 어찌하여 이렇게 되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대신이 죄가 지나치다고 하여 여러 차례 아뢰었어도 윤허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그 죄를 분명히 알고 결정해도 늦지 않습니다. 어린 임금께서 즉위하신 지 한 달이 넘지 않아서 대신을 유배하고 또 간관(백인걸을 가리킨다)을 가두시니 사람들이 필시 무슨 일인지 헤아리지 못하여 모두들 말하기가 두려워 아뢸 것이 있어도 마음 놓고 말을 못할 것입니다. 임금은 모름지기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말을 다하게 해야 하니, 대소 신료를 명소(命召)하시어 널리 의논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여러 사람들의 생각을 고려하지 않고 위에서 독단하시니, 이것이 비록 어린 임금을 부호(扶護)하자는 뜻이기는 합니다만 민심은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은 죄가 되는 줄 알면서 감히 아룁니다.

윤임이야 아무리 무거운 죄를 받는다 해도 애석할 것이 없습니다만, 왕대비께서 만약 이 때문에 상심하여 음식을 들지 못하시다가 병환이라도 나게 되면 어찌 사왕(嗣王)에게 허물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왕께서는 왕대비전께 어머니의 도가 있으니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언비어는 옛날부터 있는 것인데 옛날의 밝은 임금은 이 때문에 사람들을 죄주지는 않았습니다. 유관은 본디 배병[腹病]이 있어 아침에 조금 덜하면 저물녘에 정원(政院)에 나오는데 앉을 때는 반드시 병풍에 기대어 앉곤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정사(呈辭)하지 않고 병든 몸을 이끌고 힘써 행공(行公)한 것은 바로 국가를 염려하여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유인숙은 또 상기증(上氣證;해소咳嗽 증세)을 얻은 지가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이들 늙고 병든 유생들은 신하로서는 최고의 지위에 이르렀는데 어찌 다른 생각을 가졌을 것이며, 비록 다른 생각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분명하게 죄를 정한 뒤에야 인심을 진정시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만약 먼 길을 가는 도중에 병을 얻어 죽게 된다면 사람들은 반드시 '국가에서 죽였다.' 고 할 것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공평한 마음으로 살피고 여러 신하들에게 널리 물으셔서 사실과 죄명이 서로 맞게 하신다면 여러 사람들의 마음이 안정될 것입니다."라고 하니, 전교하여 답하기를, "이번 일은 누군들 모르겠는가. 경이 재변은 죄를 잘못 주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하니 지극히 놀랍다. 재변이 죄를 준 뒤에 나타났다면 그러하다고 말할 수 있겠으나 재앙이 나타난 것이 오래 되었으니 나는 간인(奸人)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경은 또 선왕의 지친을 죄주는 것은 그르다고 했는데, 세종조(世宗朝)에도 소헌왕후(昭憲王后)의 아버지(심온沈溫)가 큰 죄를 받았으니 만약 중대한 일이라면 어찌 지친이라고 해서 죄를 주지 않을 것인가. 조정에서 이렇게 하므로 나라 일이 더욱 그릇되니 지극히 한심하다." 라고 하였다.

〈다음호에 계속〉

道山學叢書

十七世紀의 政治社會的 狀況과 晩悔·炭翁의 歷史的 位相

17세기 정치사회적 상황 / 만회 탄옹 역사적 위상

李 佑 成 (성균관대명예교수)

〈지난호에 이어〉

義·利의 문제에 있어서 權得己는 假道學의 위선적인 부분을 밝히었다.

그는 당시 사대부의 언행이 일치하지 않은 위선적인 면모를 가차없이 밝혔는데, 여기에 날카롭고 심오한 그의 사상을 엿볼 수 있다.

4. 君臣孝弟之道를 다함

윤리관에 있어서 權得己는 君臣 孝弟의 道를 수호했다. 그는 "孝弟是百行之源(同上)"을 제창하고 "不孝弟而能於他行, 固無是理, 有之, 則僞爲耳"라 인식했다. 아울러서 "他行有虧便, 於孝弟有虧, 行一不義非孝也.(同上)"라는 것을 강조했다. 이것은 봉건사회에서의 봉건가족은 전체 사회구성의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사회질서 안정에 도움을 주는 "孝弟之道"를 강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말하기를 "施功之序, 必自事父兄始耳. 事父兄雖得其道, 而他有未及, 是則事父兄之道未盡也.(同上)"라고 하였다.

동시에 그는 고대의 禮樂제도는 모두 孝弟之道로 인하여 이루어 졌다고 생각했다. 그러므로 그는 말하기를 "凡經禮三百, 曲禮三天, 皆因孝弟之理節文之耳. 樂者, 亦樂孝弟之實. 其作樂也, 亦是以孝弟之理喩人, 使之浹於心.… 古者作樂之本意盖如此, 비여후세회음투미지樂也.(同上)라 하였다.

君臣의 윤리관계에 있어서, 權得己는 기본적으로 맹자가 말한 바 있는 "君臣之視臣如手足, 則臣視君如腹心;君之視臣如犬馬, 則臣視君如國人; 君之視臣如土芥, 則臣視君如寇讐.("孟子·離婁 下")"라는 것에 찬성했다.

그러므로 그는 "盖孟子本意只言君若以惡遇臣, 則臣亦以有以惡報之者, 此理勢之所必至耳.(『晩悔集·僭疑』 券4)"라 했다. 그러나 그는 君之視臣如土芥, 則臣視君如寇讐"의 방법에 오히려 의문을 지니고 말하기를 "盖君使臣以禮則賢者樂進, 彼賢者雖或以土芥視之, 豈有寇讐之報乎?(同上)"라 하여 유보적인 설명을 하였다. 왜냐하면 그는 君臣의 의리를 반드시 지켜 "欲爲君臣, 盡君臣之道"해야 하며, 또 "有君必有臣, 爲臣者非是爲祿之故而出力.(同上)"하는 것도, 단지 군신의 도를 다하기 위함이라 여겼기 때문이다.

5. 知行幷進論

지 행 병 진 론

권씨 부자는 기본적으로 朱子의 格物論을 계승했지만, 知行觀에 있어서는 오히려 수정과 발전이 있었다. 더욱이 그들이 제시한 "知行幷進"과 "致其眞知"의 知行觀은 지혜의 빛을 발휘하고 있다.

1. 朱子의 '格物致知'의 治學방법을 견지함

먼저 權得己는 사람들의 인식주체와 인식의 객체 대상에 대해 명확히 구분하여 "理在物而知在我, 以我之知窮物之理, 所謂格物也.("晩悔集" 卷6 "與朴仁之格物論辨說)"라 하고 있다. 그는 理는 사물에 있어 궁리함에 격물하지 않을 수 없음을 강조하였다. 즉 천하의 사물은 모두 자신(我) 이외의 객체인데 그 사물의 理를 궁구하려면, 스스로의 지식으로 사물의 理를 궁구하는 '格物공부'에 있다고 생각했다. 이러한 사물의 理를 궁구하는 格物論은 객관적인 실제적인 관점에 부합하여 선명한 유물의 색채를 가지고 있다.

둘째로는 사물 인식의 진행과정과 근거하여 '格物'과 '物格'에 대한 세밀한 분류를 했다.

權得己 는 먼저 '格物窮理'는 '格物'로부터 '物格'에 이르는 인식의 심화과정이며, 이는 바로 '格物知心'의 '初程'단계에서 진일보하여 "皆班班而可見"적인 "格物知至" 에 이르는 단계임을 강조하였다. 바로 그가 바라는 것이 그것이다.

다음으로는 그는 '格物知至'의 단계가 "先格一物" "又格一物"로 점차적으로 누적된 인식의 '初程'단계임을 밝혔다. 또한 '格物致知'단계가 인식의 누적으로부터 나아가 "脫然貫通"하여 "物無不格, 知無不格, 知無不至之效驗"하는 인식의 심화단계임을 지적해 내었다.

이상은 權得己가 이미 사람들의 인식에는 감성에서부터 이성에 이르는 점진적인 심화과정 즉 낮은 단계부터 배워서 높은 곳으로 이를 수 있는 인식과정이 있었음을 의식하고 있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다. 이른 바 "盖下學之功在於格物致至則特翻言之以覆見格物致知之功效耳.(同上)"는 즉 사람들의 인식활동의 비약을 승인한 것이지 불교선종이 말하는 '頓悟'는 아니라고 여겨 "以我心之知, 窮物之實理而有得, 豈所謂頓悟者乎!(同上)"라고 함.

셋째로 그는 "心之官則思"의 능동적 작용을 대단히 중시했다. 權得己는 '格物致知'와 '物格知至'의 모든 인식과정은 모두 사람의 思惟와 떨어질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그는 말하기를 "物理本該於吾心, 但思則得之, 不思則不得, 故前旣不思而不得矣. 今日思而不得矣. 今日思而得之, 則物理入吾曉解之內, 如自外而到也.(同上)"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그는 '所謂誠守此心, 無思無慮而坐得物理之自到也.(同上)"와 같은 잘못된 생각에 반대했다. 그는 사람들의 "窮物理而使物理領會於吾心"적인 인식과정을 "猶喫飯 ; 物格猶飯之入腹, 知至猶飽.(同上)"라 했다. 이것은 사람들이 낮은 곳으로부터 깊은 곳으로 들어가는 지식 터득과정 혹은 인식과정을 매우 형상적이고 생동적으로 설명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음호에 계속〉

權僖가 編纂한 '薰陶坊鑄字洞志'

권희 편찬 훈도방주자동지

권 정 택 (화산부원군종회 회장)

대부분의 지명은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어 그 유래를 보면 참 재미있는 곳이 많다. 특히 인쇄와 아주 밀접한 지명이 있으니 어찌 인쇄인들이 모르고 지나쳐서야 되겠는가. 그곳이 바로 주자동으로 한자를 보면 鑄(주 : 쇠 부어 만들다)와 字(자 : 글자)로 이루어져 있어 한 눈에 보더라도 인쇄와 관련이 많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주자동은 조선시대 때 활자를 만들고 인쇄하는 주자소가 있던 곳에서 유래되어서인지 지금도 주자동 주변에는 많은 인쇄사들이 분포돼 있다. 이에 본지에서는 주자동의 유래 및 이와 관련이 많은 주자소에 대해 알아본다.

조선조 활자 만들던 주자소터

주자동은 활자 만들던 주자소에서 유래됐다. 퇴계로 남쪽 남산으로 오르는 세 갈래 길에 있는 주자동은 북쪽으로 충무로2가, 동쪽으로 남학동, 남쪽으로 예장동, 서쪽으로 남산동3가와 접한다. 1396년(태조5)에 한성부 남부 훈도방(薰陶坊)에 속했으며 1751년(영조27)에는 훈도방 주자동계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 1894년(고종31) 갑오개혁 때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주자동계 주동이 되었고 1910년 10월 한성부가 경기도 경성부로 개칭되면서 경기도 관할 지역이 되었다.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통합되어 일본식 지명인 주정이 되었고 1943년 6월 구제(區制) 실시로 중구 주정(鑄町)이 되었다. 1946년 일제 잔재 청산의 일환으로 정(町)을 동(洞)으로 개편할 때 주자동이 되었다. 주자동은 법정동으로 행정동인 필동 관할 하에 있다.

지명은 옛날 이곳에 글자를 만들던 주자소가 있어 주잣골 주자동으로 불리었으며 주자동의 동명 유래가 되는 주자소는 주자동 4 7번지(구 번지) 일대에 있었고 5번지 부근에 주자교, 6번지에 일본영사관 등이 있었다. 주자교는 주자동 5번지 부근인 현 극동빌딩(서울시 중구 충무로3가) 옆에 있던 다리이다.

조선시대 계미자 정리자 등 활자를 만들었던 관청인 주자소 앞에 있던 다리라 하여 주잣골다리, 주자동교 또는 주자교라 하였다. 1621년 권희가 편찬한 '훈도방주자동지'에 의하면 주자동은 기묘 을사사화 때 충절이 높았던 인물들이 많았고 여씨향약이 행하여졌던 곳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책에는 세조 때의 문신 권람, 선조 때 영의정을 지낸 이산해, 임진왜란 때 진주성을 지키다 전사한 김시민 등 명신을 소개하고 있다.

훈도방에 주자국이 있어 주자동으로 명명

주자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주자동지(鑄字洞志)'의 '훈도방주자동지서(薰陶坊鑄字洞志序)'에 실려 있다.

한경의 정남쪽에 작은 동리가 있으니 이름이 훈도방이다. 이 방(坊)에는 주자국(鑄字局)이 있어 세속에서 그 실질에 따라 동리의 이름을 붙인 것이다. 동리는 목멱산(남산)을 자리처럼 깔고 있는데 반곡의 둘레가 채 1리가 되지 않고 또 지역이 외지고 길이 멀며 조시(朝市)와는 무척 떨어져 있어 상시(相時)에 명리를 좇는 자들은 살지 않으려 했고 농단(壟斷)하여 이익을 꾀하는 자도 살지 않으려 했다. 오직 공역에 종사하는 이들 중에 별다른 기능이 없는 자들이 서적을 인쇄하며 살았고 사족 가운데 독서하며 요양하는 자들이 전망이 트이고 밝은 것을 좋아하며 살았다. 국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래 와서 다른 이름난 동리나 큰 마을에 비해 그곳은 또한 적막하고 무료할 따름이었다. 오히려 꽃 피는 아침과 달 밝은 밤이면 술을 손에 들고 노소 할 것 없이 모두 모여 귀한 사람이든 천한 사람이든 스스로를 잊은 채 매년 한껏 즐기고는 파했다. 다른 동리에서는 겨를이 없어 하지 못한 것을 이 방에서는 세월이 오래 될수록 더욱 부지런히 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인가? 공자께서는 인(仁)하지 않은 곳에는 처하지 않았고 소상(蕭相)이 반드시 벽지에 복거한 뜻을 지금 이 동리에서 비로소 징험할 수가 있는 것이다. 상사나 우환이 있으면 힘을 다해 돕고, 재행(才行)이 있으면 현양하고 높였다.

〈다음호에 계속〉